

광주·전남 특별지자체 선포...국가균형성장시대 첫 발

‘5극 3특’ 전략 맞춰 연내 출범 추진단서 조직·공동사무 등 전남 제1호 ‘광주~나주 광역철도’ 협약 강기정 “균형발전 선도 새로운 미래” 김영록 “호남 국가성장의 진짜 주체”

국가균형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관련기사 3면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법인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협력 제도로,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존치한 채 광역단체 공동사무만 별도 구성한 특별지자체 단위에서 처리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나주시청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고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선포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상생발전 의지를 다졌다. 양 시·도는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공동 행정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올 연말까지 특별지자체(가칭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예

정이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운영(조직·재정·연차별 업무계획 등), 조광역 공동사무와 국가이양사무 발굴, 의회 설치, 규약 제정 등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를 전담한다. 특별지자체 공동사무는 산업·교통·관광 등을 대상으로 협의 추진하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양 시·도의 공동이익과 시급한 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이날 제1호 공동사무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을 선정하고 광주·전남·나주 3개 지자체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오는 9월까지 노선 합의를 완료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는 등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3개 지자체는 광역철도의 조속 건설과 호남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 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특별지자체 설치계획 수립, 국고 지원, 재정기반 구축, 정부 정책 수립과 입법과정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초광역 협력의 성공적 경험 등을 바탕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특별지자체는 광주·전남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다”며 “전남이 커져야 광주가 커질 수 있고, 초광역 협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 만큼 국가균형 발전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320만 시·도민,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과 광주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불가분의 관계로, 광주·전남 특별지



광주시와 전남도가 27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가칭) 추진 선포식을 가졌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왼쪽부터) 전남도의회 의장.

방자치단체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재도약해 나가겠다”며 “호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이 돼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이끌고 국가 성장의 진짜 주체가 되는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태균 의장은 “전남과 광주는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늘 공동 번영을 위한 동반자였지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전남과 광주가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 한 공동체로 서로 협력·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선포식은 단순히 두

지역의 협력을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12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가균형발전의 성과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1.04명 ‘전국 1위’

17개 시·도 중 유일 1.0명↑ 출생기분수당 등 지원 주요

전남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1.04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넘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 기간(15~49

세)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국가나 지역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2025년 6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4,31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4,073명)보다 244명(6%) 증가했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1.04명으로 전년(1.0명)보다 0.04명 늘었다.

전남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1.03명으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전남 출생아 수는 8,225명으로 전년(7,828명)보다 397명(5.1%) 늘었으며, 합계출산율은 전년(0.97명)보다 0.06명 증가했다. 시군 중에서는 영광군이 합계출산율 1.7명으로 전국 시군구 중 1위를 기록하고 강진, 장성, 함평, 고흥 등 5개 군이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

10개 시군구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출생기분수당(20만원)을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사용자 중심의 임신·출산·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가임력 검사 확대, 연령·횟수 제한없는 난임시술 지원, 가임력 보존사업 추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체계적 지원도 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률을 높이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모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더 혁신적이고 더 든든한 임신·출산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저출생 추세 반등 흐름을 이어가 2030년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INSIDE 뉴스	
‘G-페스타 광주’ 가을시즌 개막	2
광주도 ‘윤계명 손배소’ 본격화	6
5·18역사 왜곡 징벌적 손배 시급	7

제8회 지구를 살리는 아름다운 트레킹

한마음 플로깅 권기대회

2025. 9. 27.(토) 10:00 / 광주교 (광주 천변일대)

참가 대상 누구나 참여 가능 (참가비 무료)

참가 문의 카카오톡 jndnnews
전화 062) 720-1017
jnm1000@hanmail.net

기념품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친환경 [플로깅 키트] 선착순 증정

| 주최 | M 전남매일